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 Jesus Centered News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예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1월 3일 (제82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나에게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하라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예수중심 형제 자매들이여!

새로운 2016년에는 나에게 정직하고 남에게는 진실한 자가 되어 봅시다.

정직은 바르고 곧은 것이고, 진실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정직한 삶을 살려면 양심과 대화해야 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비추어 머리가 흐트러져서 아름답지 않다면 다시 빗어야 하고, 옷매무새가 단정하지 않다면 고쳐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양심은 우리 속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고 말함으로 양심이 인간의 소리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비추어 떳떳하고 당

당하지 않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정직입니다.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양심에 화인이 맞은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자들입니다. 양심의 소리에 한 번, 두 번 등 돌리면 양심이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어 나중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므로 거짓말 하는 자들이라" (딤후4:2). 그러므로 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딤후1:19).

그리고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심정을 가지면 됩니다. 남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곧 사랑이요, 배려요, 희생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입

장에서 우리를 보지 않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다 겪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왜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국가간의 분쟁이 있습니까? 왜 교회가, 가정에 불협화음이 있습니까? 바로 정직과 진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거짓은 잠시 이로울 수 있으나 결국 드러나고 더 큰 악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나에게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한 삶을 살아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하고 진실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라(잠14:9).

깜깜한 바다에 등대에서 비추는 한 줄기 빛, 그 빛이 물을 찾는 배에게는 생명줄입니다. 오늘날 정직과 진실의 한 줄기 빛이 이 땅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

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하면 한 치 앞을 분별할 수 없는 철쭉 같은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나부터 정직하고 진실하면 내 이웃이, 내 사회가, 그리고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항상 주장하지만, 정직하고 분명하면 어디를 가나 어디서나 떳떳하고 당당한 겁니다. 그것을 늘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2016년에는 비록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2016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朋友 이초석 목사

## 신년축복성회

2016년 1월 4(월) ~5일(화) 저녁 8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구.펜싱)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엡4:22~24)



# 암도 조기발견하면 산다

20세기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가 아르헨티나의 국가부도사태라고 합니다. 2001년에도 국가부도사태에 이른 아르헨티나는 그간에도 몇 차례의 부도 위기를 맞았고, IMF의 단골고객이 되었으며, 지금도 금융위기의 진원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 때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이런 지경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자를 막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외채도입과 방만한 예산운영 때문이기도 하나,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주요 요인은 만연한 부정부패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방치했기에 대국 아르헨티나가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소국, 국민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토도 작았고, 천연자원이나 인력자원도 없고, 빈곤과 무질서가 판치는, 곧 완전히 망할 것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리완유가 집권한 뒤 정부재정의 건전화정책을 가장 먼저 폈고, 싱가포르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아주 강력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갔습니다.

그가 부정부패 척결에 얼마나 목숨을 걸었는지 알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신의 최측근이자 오랜 친구인 건설담당 장관에게서 건설수주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 장관은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고, 당시로도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측근들은 정상참작

한 것입니다. 그 후로 품질혁신은 물론 초일류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이는 1993년 이견희 회장이 입에 칼을 물고 선언한 신경영으로, 그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삼성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국내 1위라는 안일한 생각을 잘라낸 결과입니다.

암이 무엇입니까? 암(癌)이란 ‘삼구괴물’이라고 합니다. 암의 한자를 보면 입(口)이 세 개 있어 닳치는 대로 무조건 먹어치우니 결국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괴물입니다. 국가나 기업도 암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암도 조기 발견하면 살 수 있습니다. 동 일합 니



총회장 이초석 목사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막9:43~47).

저는 이 말씀을 한 마디로 개혁이요, 혁신이라고 줄여 말합니다. 개혁(改革)은 잘못된 관행, 잘못된 환경, 잘못된 습관을 깨는 것이고, 혁신(革新)은 묵은 풍속, 잘못된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완전히 새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고 박물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나’를 진단해 보면 원인은 신앙의 암적 요소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으면 우리도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교회에 잘 다니니까...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타성에 젖은 위험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3시 예배를 활성화하고 거기에 더욱 치중하는 이유도 행여 나태한

###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

신앙이 될까 해서입니다. 더욱 기도하고, 더욱 찬양하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것입니다.

자주 건강검진을 받듯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 해바라기는 겉은 멀쩡해도 뿌리가 죽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 신앙, 헌신봉사가 빠진 신앙, 하나님께 인색한 신앙, 사랑이 없는 신앙, 불만불평을 달고 사는 신앙, 다 병든 신앙입니다. 어디가 병들어든 병든 겁니다. 지금 서둘러 수술해야 합니다. 늦으면 수술도 못합니다. 암 말기에는 수술하려고 개복했다가도 다시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으라’는 프랑스 속담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신앙을 개혁하세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나태하여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가 신랑 만날 기회를 잃었듯이, 영·혼·육에서 때를 놓친 개혁은 실패와 영멸을 안길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암도 조기발견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 변화를 거부하면 개혁의 대상이 된다

을 해달라며 처벌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리완유는 냉정하게 거절하고 결단합니다. 장관과 그에 연루된 자들을 모두 수장(水葬)하기로. 이 소식을 들은 장관은 결국 감옥 내에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모든 관직에 있는 자들이 청렴하지 않으면 죽음인 것을 깨닫게 되어 공직자들에게는 청렴, 국민들에게는 준법정신이 고취되었다고 합니다.

잘못된 관행, 부정부패는 국가의 암이니 당연히 잘라내야 합니다. 기업에도 암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불량품입니다. 이것을 근절시키지 않으면 그 기업은 도태되거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애니콜 신화’는 바로 1994년 ‘애니콜 화형식’이라는 극약 처방, 불량품의 뿌리를 뽑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판매해온 핸드폰을 전 임직원이 보는 앞에서 다 불태웠습니다. 제대로 수술

다 . 국 가 의 존립 을 위태롭게 하고, 기업을 망하게 하고, 단체를 힘들게 하는 암적 존재, 암적 요소도 조기 발견하여 수술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에게 있어 암적 존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잘못된 습관입니다. 게으름, 썩은 생각, 부정적인 마음, 거짓과 위선, 음란... 이런 것들은 내 삶을 병들게 하고 낙오된 삶을 살게 하며, 결국 죽게 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이것을 조기발견하고 수술해내야 내가 삽니다.

암은 대강 제거하면 다시 전이됩니다. 내 삶의 암적 요소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시 나를 잡아먹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2016년, 우리는 ‘나에게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하자’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이것 역시 내적인 암을 제거하지는 개혁의 일환입니다.

신앙의 암적 요소도 있습니다. 안일한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개의 암이 초기증상이 없듯 신앙에 암이 걸린 라오디게아 교회도 전혀 자각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만족하고 자만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라고 여기고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멀고 벌거벗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고 호되게 야단치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 치리라”(계3:15~16).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선교 차 유럽에 나가보면 웅장한 교회 건물이 관광지가 되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나에게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되자



어느 날 하루살이와 베짖이가 친구가 되었다. 둘은 기타를 치고 노래하며 열심히 놀았다. 놀다보니 어느덧 저녁이 되었다. 베짖이가 하루살이에게 말했다. "하루살이야, 벌써 저녁이 되었으니 우리 내일 만나자." 그러자 하루살이가 베짖이에게 물었다.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을 모른다. 분명 내일은 존재하는데 말이다.

하루살이가 죽고 나자 베짖이는 외로워졌다. 그래서 베짖이는 개구리와 새로운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둘은 다정한 친구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이 왔다. 개구리가 베짖이에게 "베짖이야, 우리 내년 봄에

만나서 놀자." 라고 했다. 그러자 베짖이가 개구리에게 "내년이 뭐야?" 라고 물었다. 베짖이는 내년을 모른다. 내년은 분명히 있는데 말이다. 내일이 없다는 것, 내년이 없다는 것, 그것은 비극이다. 그러나 더 큰 비극은 영생을 약속 받았음에도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눈 앞에 보이는 것만 믿는 자가 아니겠는가!

금요일회 때 목사님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선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라." 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박혔다. 세계적으로 하루에 약 30만 명이 죽는다고 한다. 죽음을 이긴 자 없으며,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한 자 없다. 권세자도, 부자도 죽음 앞에 모두가 항복하고 말았다.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수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어도 죽음은 피할 수 없

는 것이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있다.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주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한다. 내일은 장담할 수 없다. 인생은 허무한 안개와도 같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을 주셨다 (롬 2:14).

어느 날 도둑들이 부잣집에 들어가 보석을 한 보따리 훔쳐와 말하길 "야! 우리 양심껏 나눠 갖자."고 했단다. 이렇게 율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양심의 소리는 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나 에겐 정직하고 남에겐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하기 때문이다. 2015년은 이제 가고, 2016년이 시작된다. 총회장 목사님의 성역도 32년을 시작하셨다. 목사님의 성역 31주년을 축하드리며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기도로 도울 것이다.

**배방예수중심교회 임택함 목사**

# 신분을 알려주러 오신 예수

지난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 마당 잔치가 열렸다. 유아 유치부를 시작으로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 대학부가 수개월 동안 정성껏 준비한 잔치였다.

이 날 특히 우리의 가슴을 저민 내용은 중고등부가 준비한 연극이었다. 실제 외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한 이 극의 내용은 이렇다.

버스의 브레이크가 과열된 것을 안 버스 기사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그만 한 아이를 치어 죽게 한다. 다들 아이를 죽인 버스 기사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책임지라'며 난리가 났다. 그러나 버스 기사는 아무 말 없이 흐느낄 뿐. 그 때 누군가 말한다. 그 아이는 그 버스 기사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절규하는 버스 기사 뒤로 영상이 오버랩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다. 우리를 살리려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가슴이 저 기사의 마음이 아닐까. 죽이기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실 때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잔치가 끝나고 단에 오르신 총회장 목사님은 말씀하셨다.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의 신분을 아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열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되찾아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자, 공주만 되어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온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을 권세는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가 복종하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도 여전히 세상 자녀들보다 못하게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를 확실히 아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를 누리게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는 찬송으로만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정말 구주가 오셔서 억눌린 삶에 기쁨이 넘치고, 병든 삶이 나음을 받고, 가난한 삶이 부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다.

**신묘수**

jesus7857@gmail.com



# 지계와 작대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이 이 부족한 종의 고백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러주시고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현재 사역지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총, 목사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목사님을 보면 지계를 받치고 있는 작대기가 생각납니다. 바소쿠리에 가득 담긴 과일과 채소를 받치고 있는 작대기가 목사님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작대기가 흔들리고 빠지면 바소쿠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져 박

살나고 말지요. 그래서 작대기는 힘들어도 그것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행여나 영혼들이 땅에 떨어져 상할까봐, 다칠까봐 힘에 겨워도, 어려워도, 아파도 내색 없이 31년을 견디신 그 모습이 그 랐습니다. 그 모습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때론 가슴 아팠지만 언젠가 주님이 그 작대기를 품에 안고 가실 날을 생각하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의 소망은 미력하나마 목사님의 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맡겨진 양 떼를 잘 돌보는 것이며, 섬기고 있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늘 목사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이 죄송스럽지만, 다시 운동화 끈을 조이고 달려보겠습니다. 비록 작은 지계지만 작대기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공도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상하지 않고 창고에 들어질 수 있도록 인내

하고 견디며 사랑하겠습니다. 엄마소를 닮은 얼룩송아지가 되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언젠가 주님 품에 안겨갈 날이 있겠지요.

총회장 목사님은 자신이 걸어오신 길을 말씀 하실 때, 늘 물 없는 사막, 눈 덮인 산야를 걸어왔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하며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함 따라 어떤 고난이 오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2016년 목회하겠습니다.

2016년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중심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공도예수중심교회 임영인 목사**

#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



1989년 9월 세째 주일은 제게 특별했습니다. 이초석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예배에 참석하여 성령을 받고 부터 완전히 제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부터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고, 결국 주의 종의 길을 택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목회를 보면서, 또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복음전도 사역은 예수님이 행했던 권세와 능력의 사역이고,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같습니다. 백문백답이 오직 예수라고 당당히 외치는 모습이 자랑스럽고,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30년!", 첫 해인 2015년에 저에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곧잘 성장하다가 여러 해 동안 정체와 침체,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단하고 결단하여 수개월을 주님만 의지하고 애통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럼으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고통이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임을 깨달았습니다.

정읍교회에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초기에 차에 기름이 적어서 '보충해야지, 갑자기 밤에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생각하면서도 보충하지 않고 있었는데, 밤늦게 멀리 가야하는 급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길도 모르는 곳이라 앞

차를 따라 가다가 기름이 거의 바닥이 나서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으라 그만 앞 차를 놓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한 일이 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도 미리 미리 충전해두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배터리가 방전되면 핸드폰은 쓸모가 없고, 차도 기름이 없으면 차로써 쓸모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늘 기도하여 충전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처럼 기도의 일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올해 체험하여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습관화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오로지 기도로 목회하시는 것처럼, 저도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목회의 성공비결임을 알았으니까요. 지금까지 인도해주시고 가르쳐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읍예수중심교회 김상기 목사**

#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해보자



할렐루야! 저는 교회방송실에서 자막으로 봉사하는 박영신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를 대접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작년 9월 말쯤 평화통일을 위한 서울 집회를 앞두고 목사님께서서는 단에서 집회를 위해 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이직을 위해 쉬고 있던 터라 부담 없이 1일 금식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제 앞으로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의 노예로 부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시인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제가 가지고 있던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금식이 끝난 후, 저는 하루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매일 3시간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하였습니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였는데, 좋은 땅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것'이라는 성경 말씀(눅8:15)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대로 제 마음의 밭을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였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먼저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으며,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마음으로 용서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창 밭을 갈고 자갈을 골라내던 중에 하나님께서 30만원을 준비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만의 하나님 음성 분별법은 '그 음성이 성경에 비춰봤을 때 합당한가', 그리고 '제 배우자인 명관 형제도 동일한 응답을 받는가'입니다. 저는 즉시 명관 형제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준비해야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줄 것인가?' 였습니다. 막상 30만원을 준비하라고만 했지, 어디에, 또는 누구에게 주라는 음성은 못들은 것입니다.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성경말씀(시119:105)이 떠올

##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히브리서 13:2)

랐습니다. 내 발의 등이란 내 발 바로 앞만 비추기 때문에 내가 다음 걸음을 옮겨야지만 그 다음 길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날 저녁 금요일에 저는 일단 30만원을 준비해서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 전에 목사님께서서는 항상 방송실에 들르시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누군가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바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저는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고 자막을 내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어떡하지. 그냥 돌아갈 리가 없는데... 어떻게 찾아야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던 중에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물어봐라! 예수님께 물어봐라!" 하고 반복해서 외치셨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것이 제 생각에 대한 응답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쭙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셔서 30만원 바로 준비했습니다. 누구에게 갖다 줄까요?" 예배가 거의 끝날 무렵 목사님께서서는 저에게 당산역에 있는 한 노숙자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가끔 보던 노숙자였습니다. 한번은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던 길에 그 노숙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왜소한 체격에 얇은 패딩점퍼를 입고 모자를 뒤집어쓴 채 웅크리고 앉아서 가로등 불빛에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참 희한하다' 하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장면을 떠올리게 하시며 이 사람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또 명관 형제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명관 형제는 "와! 하나님께 합당한 자다." 하면서 크게 감동한 듯이 박수를 칩니다. 알고 보니 명관 형제도 그 노숙자가 노란 불빛에 의지해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봤고, 저 사람을 돕는 사람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다고 합니다. 저와 명관 형제는 기대

하는 마음으로 당산역에 갔습니다. 아니 나 다를까 그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얼른 그 근처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사고, 메모지에 편지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수중심교회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저씨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셔서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저씨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적어서 교회신문과 함께 3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 안으로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 그 사람을 다시 보았습니다. 돈부터 세어볼 줄 알았는데, 그 노숙자는 저희가 쓴 편지부터 읽고 있었습니다. 노숙자에게 30만원이나 줬다고 하면 다들 저에게 미쳤다고, 그게 정말 하나님 음성 맞느냐고 했겠지만, 저는 그 모습에 확신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음성이었다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그곳을 가니 그 노숙자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디로 간 것인지 궁금했고, 돕는 자가 나타나서 데려갔다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려고 당산역에 가니 그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똑같은 점퍼에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그전보다 등치가 좀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준비한 것들을 건네면서 가까이서 보니 하얀 피부의 여자였습니다. 깜짝 놀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주변을 살펴보니 노숙자가 앉아있었던 장소에 그때 보았던 성경책을 읽을 수 있을만한 불빛 같은 게 없었습니다. 저와 명관 형제는 분명히 봤거든요. 그 노랑고 희미한 불빛을요. 머리가 갑자기 멍해졌습니다. 설마... 천사였을까?

지금은 확신합니다. 네! 저와 명관 형제는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천사를 대접했구나, 그리고 그때 노숙자에게 쓴 편지는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였구나...'. "안녕하세요, 하나님! 저희는 예수중심교회 성도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썼었지요. 너무 기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히브리서 13:2). 그 후에 우리 삶은 신바람 나는 삶 자체였습니다. 성경을 보다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에 의

지해서 제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것마저 드리고 나면 내 통장 잔고가 다 바닥이 나는 상황이었지만, 사르밧 과부에게 하신 축복,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으리라(왕상 17:14)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히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네게 내가 양식을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과 단체에서 양식과 물질이 들어왔고, 매달 십일조와 선교헌금도 하게 되었으며, 풍성히 쓰고 남기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던 중에 이제는 나의 일생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로 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보다가이사야 45장 3절 말씀, '흑암 중의 은밀한 보화를 주어 내가 네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는 구절을 보고 매일 부르짖으며 기도하니 은밀한 재물과 사람, 단체, 금융기관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셔서 저는 평화통일 기도성회 때 서원한 예물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산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매일 살아갈 수 있고,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고 손을 잡는 자들이 도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명령에 순종하면 만물의 주인이 되었다고 인정받게 될 겁니다.

저는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기도와 행함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저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람을 자랑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고전3:21)' 라는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목사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의심 말고 오직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보세요. 부족한 것 없는 삶이 전개될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박영신

